

종교교육학연구 제10권. pp. 49~6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불교

김 용 표

(동국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한국적 문화 전통에서 야기된 가정 교육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모색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불교의 가정관을 살펴보고, 가정 교육의 주체인 한국 부모의 교육관의 제 문제 상황을 한국적 문화 전통과 불교적 맥락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육에 관한 불전의 가르침을 『善生子經』, 『父母恩重經』, 『方廣大莊嚴經』 등을 통해 알아 본 다음, 불교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가정 교육은 (a) 신세대의 사고 방식을 수용하는 轉意法식 교육; (b) 자녀를 佛性을 지닌 주체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교육; (c) 調和로운 삶의 成就를 가르치는 中道の 교육 (d) 對話를 통한 카운셀링 교육; (e) 攝受와 折伏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 등을 통해 성취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불교가정교육, 전의법, 주체적 인간, 불성, 중도의 교육, 카운슬링 교육, 대화교육, 자비

Korean Traditional Home Education and Buddhism

Kim Yong Pyo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ore new directions of Buddhist home education. First, the problems of Korean traditional home education will be examined in the light of social context. Second, Buddhist notion of home will be

introduced. Third, the Buddha's teaching of home education in Buddhist scriptures will be explored. Then, we will propose some directions of Buddhist modern home education as follows: (a) methods of the turning meaning and accepting a new generation's way of thinking; (b) respecting child as a subjective person who has Buddha nature; (c) education of the Middle way which teaches harmonious achievements of life; (d) counselling education with dialogue; (e) harmony of compassion and strict teaching.

Key Words : Buddhist home education, method of turning meaning, subjective person, Buddha nature, education of the Middle way, counselling education, dialogue education, compassion.

I. 논의의 방향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에 있다. 가정은 자녀에게 예절과 윤리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 기초적인 교육의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의 가정교육은 한국적 문화 전통에서 기인된 문제와 더불어 산업화와 서구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비교육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문제는 현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는 삼대 이상의 세대와 여러 형제와 친척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폭넓은 인간 관계 속에서 원만한 사회 적응 능력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와 소수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제도는 편협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주성이 부족하고 예의를 모르는 인간을 키울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과되지 않은 외래 문화의 수용, 물질 중심적 풍조, 감각주의적 소비 문화 등의 외적 요인과 함께, 부모와의 대화 부재, 과잉보호, 일류 병이나 성적 제일주의 등과 같은 부모의 그릇된 교육관 때문에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 것이다.¹⁾

본고는 이러한 한국적 문화 전통에서 야기된 가정 교육의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의 가정관을 규명해보

1) 박선영, 한국가정교육의 문제상황과 그 불교적 극복 원리, 《불교학보》 3, 1994, 3-18쪽

고, 가정교육에 관한 불전의 가르침을 『善生子經』, 『父母恩重經』, 『方廣大莊嚴經』 등을 통해 알아 본 다음, 불교의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가정교육은, 1) 新世代의 사고 방식을 수용하는 轉意法식 교육 2) 자녀를 佛性을 지닌 主體的 人格으로 존중하는 교육 3) 調和로운 삶의 成就를 가르치는 中道의 교육 4) 對話를 통한 카운슬링 교육 5) 攝受와 折伏이 調和를 이루는 교육 등을 통해 성취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불교 가정관의 重層性

불교는 전통적으로 출가 沙門을 중심한 교단 전통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의 가치관과는 항상 마찰과 대립되는 요인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불교 경전에는 재가자에 대한 가정 교육과 가정 윤리에 대한 가르침도 설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설은 가정이 출가자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설해지고 있다.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도 소수의 출가자 중심의 교단 운영으로 재가자의 신앙 생활이나 가정 윤리에 등한시 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불교가 유교권 국가에 들어오면서 그 갈등 양상은 더 심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孝사상 중심의 유교적 현세주의는 이른바 五倫과 五常 등의 人倫의 도를 강조하는 데 반하여, 불교의 出世間道는 孝에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두 종교는 양립되기 어려운 갈등을 겪게 되었다. 孝文化 중심사회에서 出家 사문의 길을 가는 큰 不孝로 여겨졌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후손을 단절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로 비쳐졌던 것이다.²⁾

출가와 독신생활의 반가정성에 대한 전통윤리의 비판과 도전에 대해 불교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보다는 불교에도 효사상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교의 효사상을 불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위해 가정교육의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玉耶經』, 『우바새계경』, 『十善業道經』, 『四十二章經』 등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아울러 효 사상을 강조한 『佛昇忉利天母說法經』, 『六方禮經』, 『佛說父母恩難報經』, 『佛說孝子經』, 『佛說睽子經』, 『大方便報恩經』, 『大乘本生心地觀經』 등 효에 관련된 경전을

2) 3-4세기 경 東晉 牟融(子)이 찬술했다는 「理惑論」(僧祐 撰, 弘明集에 수록, T.52, no 2102)은 유교전통에 대한 불교의 대응논리를 37조의 문답체로 서술한 호교론적 논서로, 사문의 생활은 孝와 禮에 상반된다는 주장을 孝經과 論語를 예로 들어 비판하는 데 대해 불교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작하여 불교에 내재된 효와 가정윤리 사상을 강하게 부각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불교는 세속적 욕망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탈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가정이 부정될 뿐이다. 싯다르타는 출가를 직전 궁정과 가정의 즐거움과 소중함도 종교적 해탈을 얻지 못할 바에는 별 의미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독백하고 있다.

남·늙음·죽음을 건너지 못하면
영원히 여기에서 즐겨 놀 인연이 없으리.³⁾

불교에서의 出家의 궁극적 의미는 가정의 부정이 아닌 가정의 종교적 완성을 위한 행위이다.⁴⁾ 출가 수도하는 것이야말로 九族을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공덕이며 부모를 法の 보시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효행이라고 해석한다. 출가는 가정질서의 파괴가 아닌 보다 높은 차원의 가정 윤리의 완성을 추구하는 종교적 결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가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은혜를 갚고자 함에 있으며, 은혜를 갚되 法の 재물을 베풀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교적 가정관의 중층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가자의 가정관과 재가의 가정관은 다른 차원에 있으며, 또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가정관에도 변증법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출가와 재가를 초월하는 보살불교를 표방하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世俗과 涅槃을 둘로 보지 않는 不二의 가정관으로 會通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정을 菩薩의 수행 도량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재구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승 불교의 가정의 의미를 ‘보살도를 실천하는 진리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가정의 개념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한 보편적인 모델을 제시해준다. 불교에서의 가정은 ‘진리를 실천하고 각자의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진리의 공동체, 즉 승가를 의미한다. 승가란 삼보(불·법·승) 가운데 하나로 ‘좋은 벗의 모임’이란 뜻이다. 즉 깨침의 길을 가려는 길동무들의 모임을 말한다. 불자들의 삶의 목표가 진리에 눈을 뜨고 본래의 참 자아를 실현하는 것일진대 가정은 바로 진리의 실천장, 즉 하나의 승가여야 한다.⁵⁾

3) T.4, 佛所行讚 제5 出城品, “不度生老死 永無遊此緣”

4) 출가의 내적 의미는 ‘번뇌와 애욕의 의 집으로 부터의 해방’이나 ‘자유로운 주체적 삶의 추구’에 있으며 외적으로는 ‘애욕과 집착의 상징인 가족으로부터의 일탈’과 “세속의 인연과 유리된 명상과 수행에 적합한 장소의 선택”이라는 목적도 있다.

5)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편찬위원회,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5), 51쪽.

불교적 가정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불교적 가정의 교육의 원리와 방법도 당연히 이에 따라 도출될 것이다. 가정은 대승 행자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 수행의 장이므로, 正法의 원리에 따른 三業에서 청정한 생활, 합리적 경제 생활, 가정구성원간의 역할과 바람직한 관계, 자녀와 부모와 관계, 형제간의 관계, 결혼, 육아, 가정의례, 조상에 대한 예절, 친족 관계의 예절 등 가정교육의 기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III. 佛典에서 가르치는 家庭教育

1. 『善生子經』의 子女 教育法

가정교육에 관한 불전의 가르침은 『善生子經』, 『方廣大莊嚴經』, 『父母恩重經』, 『우바새戒經』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佛典에는 부모의 의무, 효의 교육,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 바람직한 대인 관계법, 가정경제에 대한 교육, 결혼과 부부간의 의무, 이상적 부모의 조건 등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위의 경전들 가운데에서 가정 교육의 실천 덕목을 가장 정돈된 형태로 설하고 있는 경전은 팔리 경전인 『長部經典』 31경의 『싱갈라에게 가르친 경』이 있다.(DN. III, pp. 180ff) 이에 해당되는 漢譯 경전으로는 『善生子經』과 『六方禮經』 등이 있다.⁶⁾ 이 경은 싱갈라 (Singala, 尸迦羅越)라는 젊은이가 그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서·남·북·상·하 등의 여섯 방향의 신에게 예배⁷⁾ 하고 있는 것을 본 붓다가 전통적 바라문교의 예배 의식을 인간 관계에 대한 여섯 가지 윤리 덕목으로 바꾸어, 이를 잘 실천하는 것이 진실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다.⁸⁾

『善生子經』은 부모의 자녀 사랑법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하고 있다.

첫째, 惡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둘째, 善에 들게 한다.

- 6) 『長阿含經』 권 11 「善生經」(大正藏 1, 70a), 『中阿含經』 권 33 「善生經」(大正藏 1, p.638c), 『尸迦羅越六方禮經』(大正藏 1, 250c), 『善生子經』(大正藏 1, 252b) 등.
- 7) Bhāḍāranyaka Upanisad. III.9. 20-24; Chāndogya Upanisad I.3,11등의 바라문교의 문헌에는 이러한 여러 방향의 신에 대한 예배 방법을 설하고 있다.
- 8) 이러한 설법 방법을 轉意法이라고 한다. 전의법은 상대방의 논리와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내용을 바꾸어 불교적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설법방식이다. 여기에서 동방은 부모, 남방은 스승, 서방은 처자, 북방은 친구, 하방은 고용인, 상방은 사문이나 바라문을 가리킨다.

셋째, 學藝를 배우게 한다.

넷째, 적합한 배우자와 결혼하게 한다.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상속시킨다.(T.1, 71c)

『善生子經』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에 대한 가르침은 그 당시 인도의 관습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의 가르침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⁹⁾ 이 경의 가르침이 의도하는 바는 자녀에게 악을 멀리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윤리 교육, 교양 교육과 직업 선택을 위한 기능 교육,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결혼교육, 현명한 경제 생활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라는 데 있다할 것이다.

첫째, ‘악으로부터 멀리한다’함은 구체적으로 10惡을 멀리하여 업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선으로 인도한다’ 함은 10善의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을 학습시킨다’ 함은 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업에 대한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당시의 불교도 중에는 상인이 많았으므로 현대의 상업 부기와 같은 인산(印算)의 학문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듯 하다. 이것은 현대의 직업을 위한 기능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넷째, ‘적당한 배우자’란 가문·행실·생김새가 알맞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자녀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맞이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상속시킨다’함은 정당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것으로 좋은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方廣大莊嚴經』의 理想的 어머니의 조건

『方廣大莊嚴經』 「勝族品제3」¹⁰⁾에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조건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 경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땅에 탄생할 때 선택될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를 조건을 논하는 자리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方廣大莊嚴經』에는 이상적인 보살의 어머니의 조건으로 32가지 덕목으로 열거하고 있다.¹¹⁾ 이 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32가지 이상적

9) 『싱갈라에게 가르친 경』에 대한 붓다고샤 (Buddhaghosha, 佛鳴, 5세기 테라바다 논사)의 주석과 中村元: 원시불교, 1970; 『싱가라에 대한 가르침』에의 주해문 참조.

10) 지파하라 漢譯, T.4, no.187.

11) 1) 이름이 높고 멀리 퍼지며, 2) 여러 사람들의 찬탄을 받으며, 3) 위외에 허물이 없으며 4) 모

인 보살의 어머니로써의 덕목을 재구성 해보면, 첫째, 단정하고 건강한 신체적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넓은 학식과 밝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인품이 부드럽고 항상 친절해야 한다. 네째, 정숙하고 순결해야 한다. 다섯째, 정직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여섯째, 탐욕과 성냄, 질투가 없고 매사에 인욕해야 한다. 일곱째, 항상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한다. 여덟째, 경건한 종교성이 있어야 한다 등이다.¹²⁾

이러한 어머니의 품성은 곧 가정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품성을 지닐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부모 자신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녀도 이를 본받게 된다. 자녀에 있어서 부모는 인생에 있어서 최초 스승이며 이상적 인간의 전형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의 인격과 여기에서 나오는 바른 언어와 행동, 진실과 선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바로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3. 『父母恩重經』의孝와 恩의 교육

『父母恩重經』¹³⁾은 부모의 은혜가 깊고 무거움을 가르치는 경전으로 특히 중국·한국·일본 등의 유교 문화권에서 존중되어 온 경전이다.¹⁴⁾ 이 경에는 부모의 열 가지

든 상을 완전히 갖추며, 5) 종족과 성이 높고 귀하며, 6) 단정하며, 7) 이름과 덕망이 서로 맞으며, 8)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으며, 9) 아직 아이를 낳아 기른 일이 없으며, 10) 성(性)의 계율을 성취하였으며, 11) 마음에 집착이 없으며, 12) 얼굴빛이 온화하고 기뻐하며, 13) 몸이 움직임은 오른쪽 잡이이며, 14) 학식과 용심이 밝고 투철하며, 15) 자태와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16) 언제나 두려워함이 없으며, 17) 많이 듣고 잊지 않으며, 18) 지혜가 장하고 엄숙하며, 19) 마음에 아첨과 굶음이 없으며, 20) 속이는 일이 없으며, 21) 아직 성난 일이 없으며, 22) 항상 인색함이 없으며, 23) 성에 질투가 없으며, 24) 성에 조금도 동함이 없으며, 25) 얼굴빛은 윤택하며, 26) 입으로 나쁜 말함이 없으며, 27) 일에 잘 참으며, 28) 완전히 부끄러워 할 줄 알며, 29) 삼독이 모두 얹으며, 30) 온갖 여인으로서의 허물을 멀리 떠났으며, 31) 하늘 받들기를 법답게 하며, 32) 여러 가지 상이 뚜렷함이다. 이와 같은 모두 공덕을 성취하였다면, 비로소 보살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 (T.3, No. 187, 542C-543a)

12) T.3, 542c-543a.

13) T.85.1403 ; K.20-1257.

14) 『開元釋教錄』 제18 僞妄亂眞錄 속에 이 경전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부자연스럽고, 丁蘭·蕪黯·郭巨 등 고대 중국의 효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편찬된 僞經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에 유포된 『大報父母恩重經』이 있고 고려대장경의 『父母恩難報經』(K.20-1257)은 安世高의 번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경은 본래 불교의 경전이 유교적으로 변용된 경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불경의 중국적 변용이나 위경의 찬술은 불교가 중국문화권에 토착화하기 위한 창조적 작업이며 대승경전의 개방성으로 볼 때 불설로서의 경전적 권위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대승경전의 권위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줄고, The Hermeneutics of the Scriptural Word in the Prajñā-Madhyamika System, Templ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2, 제4장 참조).

은혜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 ② 해산날에 즈음해서 고통을 이기는 은혜 ③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는 은혜 ④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빨아 먹이는 은혜 ⑤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는 은혜 ⑥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 ⑧ 먼 길 떠났을 때 걱정하는 은혜 ⑨ 자식의 장래를 위해 고생을 참는 은혜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은혜¹⁵⁾

부모의 은혜에 대한 교육은 자신의 생명을 있게 해준 報本의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위에 열거한 여러 은혜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앞에 나온 『善生子經』에도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법에 대해, 첫째, 받들어 공양하여 모자람이 없게 한다. 둘째,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사된다. 셋째,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며 거스리지 않는다. 넷째, 부모의 바른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 다섯째,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등으로 설하고 있다. 팔리경전에는 報本 사상, 경제적 봉양, 정신적인 걱정을 끼치지 말 것, 질병에 대한 의료치료, 식사에 대한 보살핌, 조상에 대한 예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多様な人間關係에 대한 교육

『善生子經』에는 가정에서의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뿐만 아니라 바른 인간 관계를 지니는 법에 대해서도 남편과 부인, 제자와 스승, 친구간의 관계, 주인과 고용자, 신자와 성직자 등으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1) 남편과 부인:

◇ 남편은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부인을 대해야 한다.

① 존경할 것 ② 경멸하지 말 것 ③ 난잡한 행동을 하지 말 것 ④ 권한을 줄 것 ⑤ 장식품을 제공할 것.

◇ 또한 부인도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① 가사를 잘 처리하며, ② 친척을 잘 다루며, ③ 난잡한 행동을 하는 일 없으며, ④ 貯蓄한 것을 지키며, ⑤ 하여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슬기로우며 근면한다.¹⁶⁾

15) T.85, 1403b-1404a.

16) T.1, 71c-72a.

2) 제자와 스승:

◇ 제자는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스승을 섬겨야 한다.

① 일어서서 예를 할 것 ② 가까이서 모실 것 ③ 열심히 듣고자 할 것 ④ 시중을 들 것 ⑤ 삼가 학예를 배울 것,

◇ 또한 스승은 다음의 다섯 가지 법으로 제자를 사랑한다.

① 잘 지도하고 훈육하며, ② 습득한 것을 잘 주지시키며, ③ 모든 학예지식을 설명하는 이가 되며, ④ 友人·봉우 사이에서[그에 대하여] 사랑을 퍼뜨리며, ⑤ 여러 일에서 비호해 준다.¹⁷⁾

3) 친구간의 관계:

◇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友人을 섬겨야 한다.

① 베풀어 줄 것(布施), ② 사랑 받을 말을 할 것(愛語), ③ 남의 이익이 되는 일을 실행할 것(利行), ④ 협동하여 일을 행할 것(同事), ⑤ 속이지 말고 진실할 것.

◇ 또한 봉우도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良家의 아들을 자애한다.

① 그가 放逸하였을 때 지켜 주며, ② 방일하였을 때 그 재산을 지키며, ③ 두려워 떨 때 庇護하는 이가 되며, ④ 역경에 빠졌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며, ⑤ 그의 뒤의 자손도 소중히 한다.¹⁸⁾

4) 주인과 고용인:

◇ 주인은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고용을 대해야 한다.

① 그 능력에 따라 일을 배당할 것 ② 음식과 급료를 급여할 것 ③ 병들었을 때는 간병할 것 ④ 훌륭한 珍味の 음식을 나누어 줄 것 ⑤ 적당한 때에 휴식을 취하게 해 줄 것에 의해서이다.”

◇ 또한 고용인도 다음 다섯 가지 법으로 주인을 대해야 한다.

① [주인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며, ② 나중에 취침하며, ③ 주어진 것만 받으며, ④ 그 일 거리를 잘 하며, ⑤ [주인의] 명예와 칭찬을 퍼뜨린다.¹⁹⁾

5) 신자와 성직자:

◇ 시주는 사문과 바라문을 다섯가지 법으로 받들어 공양해야 한다.

① 몸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② 입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③ 뜻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④ 때맞추어 보시하는 것이다. ⑤ 문을 막지 않는 것이다.

◇ 사문 바라문도 공양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가르쳐야 한다.

① 보호하여 악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 착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③ 선한 마음을

17) T.I, 71c.

18) T.I, 71c

19) T.I, 72a.

품게 하는 것이다. ④ 듣지 못한 일을 듣게 하는 것이다. ⑤ 이미 들은 것은 잘 알게 하는 것이다. ⑥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인간 관계에 대한 교설은 이 경전이 설해진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나, 그 기본 원리는 인간애에 기초한 평등과 책임, 상호 존중에 기초한 예절의 실천에 있다 할 것이다.

IV. 現代 家庭教育의 方向에 對한 佛敎의 提言

1. 신세대의 사고 형식을 수용하는 轉意法的 敎育

앞에서 살펴본 불교의 가정 교육 정신을 현대의 바람직한 가정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 보자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학교나 가정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신세대들의 사고방법이나 문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동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N세대'로 불리는 우리의 신세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생활 양식이 있다.²¹⁾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 세대 어른과는 의사 소통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세대간의 의사의 단절 현상을 교육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신세대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가정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N세대들은 이른바 '3N'이라고 불리는, New (새로운 것), Now (지금의 시간), 그리고 Network (타자와의 연결)을 추구한다고 한다.²²⁾ 이러한 신세대 문화는 부정적인 차원과 긍정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대처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등장한 신세대들의 폭발적인 열정과 저항을 부정하지만 말고 이를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붓다의 설법방식의 하나인 轉意法的 敎育 방법을 통해 방법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세대들의 사고와 논리 형태를 긍정적으로

20) T.1, 72a

21) 풍요 속의 소비자 문화에 익숙해 있는 신세대들은 조화와 이성보다 감성과 무질서, 카오스와 부조화의 문화를 지향한다. 한마디로 '그저 느끼기만 하라 (Just feel)'는 표어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배타적 욕망의 문화, 원초적 자유, 풍요로운 소비문화,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듯 보인다. 그들은 늘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감수성을 추구하며, 고전적 음률과 전통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22) 박노해, 희망 찾기, 《중앙일보》, 1999년 5월 31일자.

수용하면서도 이를 질적으로 심화시켜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유도하려는 것이다.

1)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는 값싼 유행만 찾고 고전적인 가치와 전통을 가볍게 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은 참신한 사고와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불교는 항상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롭다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새로운 일이나 물건을 찾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이는 “나날이 좋은 날”(日日是好日)(碧巖錄), 제6 雲門好日)이며,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삶을 창조한다는 것이다.²³⁾

2) 현재만을 중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려 하지 않는 태도 또는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삶은 없다고 볼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불교도 항상 지금 여기의 삶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가 이상으로 하는 니르바나(nirvana)는 항상 현재의 윤회하는 삶 자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경전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히 살도록 하라”(법구경)는 가르침이 있다. 이것을 禪 불교에서는 ‘現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現成이란 이미 현재에 완전한 상태로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인에 있어서 생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환희인 것이다.

3) 항상 타자와 연결 속에서 존재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네티즌은 자기를 내면에서 찾기 보다는 항상 밖에 있는 타인과의 접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 있다. 넘쳐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인과의 교류는 중요한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항상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르친다. 나의 생명과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끝없는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緣起(pratitya-samutpada)라고 한다. 모든 사물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상호 연관성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지라도 이미 모든 존재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관계를 깨달을 때 모든 존재가 자기 생명과 동일함을 알게되어 자연스럽게 同體大悲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3) 김용표, 불교의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 1996.

2. 자녀를 佛性을 지닌 주체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교육

한국의 부모 중에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생각은 일체의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空(sūnyata)의 도리를 모르는 데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의 인연일 뿐, 그들 나름의 주체적 인생이 따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²⁴⁾ 자녀를 통하여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 성취하려는 생각은 부모 스스로의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我愛일 뿐, 참된 자녀 사랑은 아닌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교육의 제문제도 이러한 무지와 욕심과 성냄(貪瞋癡)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有情을 다 佛性을 지닌 존재로 본다. 그러므로 자녀도 佛性을 지닌 존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혜인, 존엄한 인격적 주체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불성의 존재인 자녀가 스스로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調和로운 삶의 成就를 가르치는 中道 교육

불교의 中道(madhyama-pratipad) 사상은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조화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²⁵⁾ 가정의 기능이 다양하듯이 가정교육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물질적, 종교적, 知的 등 모든 차원을 포함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기능의 조화로운 성취는 바로 성공적인 인간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중도 교육은 생의 기본 요소인 신체적 건강, 현명한 경제적 생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유지, 사회정의에 대한 판단, 사랑과 연민의 정신 연마, 평등심, 집중력, 지혜의 성취 등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상적인 극단주의와 폐쇄주의, 배타주의, 독단주의 등의 二元的 사고방식 등 중도적 사유와 상처되는 사상을 바로 잡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는 조화로운 삶을 통해 자녀에게 이상적 삶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方廣大莊嚴經』 「勝族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단정하고 건강한 신체적 모습, 넓은 학식과 밝은 지혜, 부드러운 인품, 순결, 정직, 바른 말,

24) 부모와 자녀의 의사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① Kathleen M. Galvin, Bernard J. Brommel 공저, 이재연, 최영희 공역, 『의사 소통과 가족관계』 (서울: 형설출판사, 1990); ② 숙명여대 아동연구센터 편, 『현대사회와 부모』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참조.

25) 중아함경 56, T.1,777c.

인욕, 보시, 경건한 종교성 등의 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4. 對話를 통한 카운슬링 교육

가정내의 대화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가족간의 대화의 장이 열리기 어렵게 되어 있다.²⁶⁾ 그 결과, 대화 부족이 낳은 오해와 갈등 때문에 잘못 나가는 자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불교 경전에는 붓다와 그 제자들간에 불교는 대화를 통한 교육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⁷⁾ 붓다의 설법 방식을 보면 거의가 제자의 질문에 대한 붓다의 답변과 상호 문답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불경의 도처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에 알맞는 반문과 설명을 통한 대화의 교육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는 상대방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편견과 오해를 없애주고 상호간의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²⁸⁾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回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²⁹⁾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러한 대화의 장이 일상화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5. 攝受와 折伏이 調和를 이루는 교육

사섭법(四攝法, catur-saṃgraha-vastu)은 불교의 攝受의 교육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다른 이를 攝受하고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끌어들이는 교육방법으로 1) 布施(재물과 법을 베푸는 것), 2) 愛語(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3) 利行(중생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 4) 同事(중생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苦樂을 같이 하며, 삶을 같이 하는 것) 등이 있다.³⁰⁾ 특히 愛語攝은 어떤 일에 두

26)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국민생활 실태조사의 하나로 전국 3만여 가구의 15세 이상 청소년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느냐”는 물음에 ‘친구’를 꼽은 청소년이 56.4%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해결한다’가 16.8%인 반면 ‘부모’라고 답한 청소년은 12%에 불과했다. 94년 조사 결과(친구 53%, 부모 14.3%)와 비교할 때 친구는 3.4% 늘어난 반면 부모는 오히려 2.3% 줄어들었다. 가족간 대화가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으로 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수치이다.

27) 박선영, 불교와 부모의 자녀 교육, 《한국불교학》 18, 1993, 52-55쪽.

28) 경전에 나오는 대화의 계기를 보면, 붓다가 먼저 발문하는 경우와 제자의 질문에 의한 경우, 그리고 어떠한 사건에 의해 문답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의 경우 문답과 토론, 그리고 반문으로 전개되며 많은 비유와 예화가 동원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詩로써 대화를 정리 요약하는 경우가 많다.

29) 藤田清, 김용택 역, 『카운셀링 불교』 (서울 : 시공사, 1999), 94-97쪽.

30) 이 외에도 십수법에는 四無量心이 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이 한량없는 것을 말한다.

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녀에게 자애로운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道元선사는 “이 四攝을 구비함으로서 16攝이 된다”라고 하였다. 즉 이 사섭법에는 각각 사섭법이 포함되어 布施안에 愛語도 있고 利行도 있으며 同事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다.³¹⁾

여기에서 더 첨가 할 것은 불교의 자비는 사랑과 연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한 질책과 차가운 警策도 이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折伏이라고 한다. 折伏이란 엄격성을 지닌 사랑이며 善을 권장하고 악과 불의를 破邪顯正하는 것이다.³²⁾ 부모의 자녀 교육도 이 두 측면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불교의 관점에서 제시해 본 가정 교육의 방향은 이 시대의 한국 가정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세대의 사고 방법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더 심화시켜 교육하는 轉意法的 교육방법, 자녀의 주체성과 그들 나름의 삶의 길을 찾게 도와주는 교육, 삶의 모든 면에서 조화로운 중도의 삶을 성취하는 교육, 대화를 통한 상담 교육, 慈悲와 喜捨, 攝受와 折伏의 교육 등은 먼저 부모 자신의 자기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 부모 스스로가 세계와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知慧人이 될 때 가정은 자연스러운 불교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31) 『正法眼藏』, 「菩提薩埵四攝法卷」

32) 박선영, 앞의 글, 1993, 58-61쪽.

〈참고문헌〉

- 『善生經』(長阿含經 11 T.1, 中阿含經 33 T.1)
- 『方廣大莊嚴經』(T.4, no.187)
- 『佛說父母恩重經』(T.85, no.2887)
- 『佛所行讚』(T.4,no.192)
- 권은주(1998), 『불교아동학개론』, 양성원.
- 김용표(1996), 불교의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
- 김용표(1992), *The Hermeneutics of the Scriptural word in the Prajna-Madhyamika Syste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편찬위원회 편(1995),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서울 : 대한불교진흥원.
- 박선영(1993), 불교와 부모의 자녀 교육, 《한국불교학》 18.
- 박선영(1994), 한국가정교육의 문제상황과 그 불교적 극복 원리, 《불교학보》 3.
- 서경수(1990), 「소승불교의 가정윤리」, 『불교철학의 한국적 전개』, 서울 : 불광출판부.
- 숙명여대 아동연구센터 편(1996), 『현대사회와 부모』,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기영(1971), 현대적 효의 정립과 불교의 사명, 《한국불교학》 3.
- 이정덕(1992), 불교의 가정윤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원중(1997), 『사례중심의 가정교육론』, 서울 : 동문사.
- 황옥자(1994),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 불교시대사.
- 中村元, 양정규역, 『불교의 본질』, 서울 : 경서원(1985).
- 藤田清, 김용택 역, 『카운셀링 불교』, 서울 : 시공사(1999).
- Kathleen M. Galvin, Bernard J. Brommel 공저, 이재연, 최영희 공역,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서울 : 형설출판사(1990).